

정무위 '대북코인사업 연루설' VS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방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11일 국정감사에서는 아권 인사의 대북 코인사업 연루설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여당은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난 7월 미국 출장을 고리로 대북 코인사업과 야당 간 관련 의혹을 부각했다.

김 의원은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한 장관이 지난 7월 미국 뉴욕 남부연방검찰청을 방문한 것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야권 인사가 등장하는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한 바 있다.

앞서 가상화폐 이더리움을 개발한 베질 그리피스는 2019년 북한을 방문해 대북 제재를 피해 암호화폐를 해외 송금하는 기술을 소개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미국 검찰은 법원에 그리피스와 한국 내 사업 연락책이 주고받은 이메일을 제출했는데, 그 안에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과 성남시장을 지낸 이 대표 등이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이날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메일을 보면 서울시가 이더리움 재단을 북한에 설립하는 데 호의적이라는 내용 등이 있다"라며 "대북 코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업이 실제 존재했고 정치권 인사가 연루됐다면 큰 사건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당 간사인 같은 당 윤한홍 의원은 최근 문제가 된 이상 외화 송금을 고리로 전임 정권 시절 가상화폐를 통한 북한 내 외화 유입 가능성까지 제기했다.

윤한홍 의원은 "최근 이 대표의 최측근이 있던 아태평화교류협회가 대북 코인을 발행해 사실상 북한으로 (돈

이) 가기 위한 우회 송금을 했다"라며 "대북 코인이 현금화해 북한으로 돈이 넘어가는 상황을 지금부터라도 집중해 발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이복현 금감원장은 "2010년을 전후한 시점의 일부가 검찰 수사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어 조사권을 발동하기도 그렇고 시효 문제도 있다"며 "그 부분을 점검해 보겠다"고 말했다.

/ 송진영 기자



한동훈 "관리·감독 긴장 늦추지 말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1일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와 서울준법지원센터를 찾아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미성년자 성폭행 김근식(54) 출소를 염두하고 이뤄진 정책 현장 방문이다.

한 장관은 이날 방문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범죄예방 시스템을 점검하겠다.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방명록에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합시다", "국민들을 범죄피해로부터 지켜내는 일이 우리 모두의 임무입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전자감독 대상자 관찰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수사팀원들을 만나 인력 부족 등 애로사항을 들었다. 문희갑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장은 "올해 안에 개발을 완료하겠다. 내년 중에는 보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 남민수 기자

검찰총장 "전관예우 근절해야…국민 눈높이로 살피겠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11일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힘을 모으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에 있는 변협 사무실에서 이종엽 회장과 만나 "변협은 인권옹호와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기관이고 검사에게는 재야의 엄정한 비판·감시자"라며 "변협과 함께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전관예우를 없애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최근 젊은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전관예우를 겪어보지 못했다'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국민이 전관예우가 혼란하고 느낀다면 전관예우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제도·실무적인 개선점이 있는지 머리를 맞대고 살펴보자는 이야기가 오갔다"고 전했다.

이날 만남에서는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따른 형사사법절차상 문제도 화제에 올랐다.



대한변협 예방한 이원석 검찰총장

서울시교육청, 올해 채용된 무기계약직부터 신체검사비용 지원



서울시교육청은 신규 채용된 관내 무기계약 근로자의 채용 신체검사 비용을 이달부터 전액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의 무기계약 근로자는 채용 신체검사 비용을 자가 부담으로 하고 보상받을 수 없어 부당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신체검사 비용은 한 건당 4만원 가량으로, 무기계약직 합격시 필수로 받아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채용에서 총 581명의 서울시교육청 소속 무기계약 근로자는 이달부터 채용 신체검사 비용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해당되는 무기계약 근로자는 서울시교육청 관내 공립학교의 조리실무사, 특수교육실무사, 돌봄전담사, 교육실무사, 교무행정지원사 등이다.

비공무원 신분인 공무직 등을 채용할 때 신체검사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있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7월 교육기관 등 공직유관단체에서 공무직 등 비공무원을 채용할 때 신체검사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개선을 권고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권익위의 권고도 있었고, 올해 3월에도 교육지원청에 채용 신체검사 제도 개선에 대한 공문을 발송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금까지 실제 지급이 되지 않은 배경으로는 이같은 비용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최근 확정돼 지난 9월 중순에서야 예산 집행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5~6월)에 채용된 9월1일자 무기계약 근로자부터는 신체검사에 대한 영수증을 제출하면 실비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는 하반기 채용을 포함, 내년 이후에도 계속 지급받을 전망이다. 다만 올해 이전 것은 소급되지 않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상반기 채용은 추경 편성 등으로 지급이 늦게 됐지만 하반기 채용부터는 비용을 1달 이내로 신속하게 지급할 것"이라며 "앞으로는 무기계약 근로자의 비용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신종현 기자

명인제약(주)

광고설명: 2022-1634-002100 | 민타겟 의약품 판매하는 물입니다 | 부제제의 있을 수 있으나 정부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알고 (자제약사 제작상 상세설명)



2022 브랜드 고객충성도 1위
잇몸치료제 부문

주최·주관 : 한국소비자포럼



잇몸은
매일매일 자극받고
견디고... 또 견디고
있습니다



소중한 잇몸



이가탄으로
지켜주세요

잇몸병엔 역시
이가탄



효능·효과 치주치료 후 치은염 및 경·중등도 치주염의 보조치료

임플란트, 스케일링 후 붓고, 피날 때도 이가탄이 좋습니다

“아픈 아이 맡기세요”…서울시 거점형 키움센터 돌봄 지원

성북센터 ‘일시돌봄·병원동행’ 시범 운영…간호 인력 상주

서울시가 공공 돌봄시설에서 아픈 아이를 잠시 맡아 돌봐주거나 병원에 데려가 주는 사업을 시작한다.

서울시는 7일 성북구 종암동(회기로3길 17)에 개관한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이하 키움센터)에서 ‘일시돌봄·병원동행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맞벌이 가정 등에서 갑자기 아픈 아이를 돌보기 어려울 때 키움센터에 일시적으로 맡길 수 있다. 센터에 상주하는 전문 간호 인력과 돌봄 요원이 전용 차량으로 병원에 데려가 주고, 센터 내 아동용 병상이 갖춰진 공간에서 보호자가 올 때까지 돌봐준다.

일시돌봄·병원동행 지원은 올해 8월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 핵심사업 중 하나다. 서울시는 성북 키움센터를 시작으로 운영 기관을 내년 5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번에 개관한 거점형 키움센터는 시가 성북구 소유 공공건물을 무상 임차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성북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개관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지상 2~4층에 연면적 1천170㎡ 규모로 조성했다. 아픈아이 일시돌봄 공간을 비롯해 아이의 상상력을 자극할 다목적공간, 요리·미술·음악 등 예체능 활동공간 등으로 꾸몄다. 시설 종사자와 이용 아동

의 의견을 설계에 반영했다고 시는 전했다. 평일 운영 시간은 학기 중에는 오후 1~7시, 방학 기간에는 오전 8시~오후 8시다.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이용 신청은 전화(☎ 02-6956-7033)나 우리동네키움포털(icare.seoul.go.kr/icare)로 하면 된다. 앞서 노원·도봉권, 동작권, 종로·서대문권에서 운영 중이다.

/ 권혁수 기자



3년 만에 정상 개방 행사가 열린 8일 오전 광주 무등산 국립공원에서 탐방객들이 정상에 오르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3년만에 빛장 푼 무등산 정상

강기정 광주시장 등 2만명 천·지·인왕봉 풍광 감상

무등산 정상이 3년만에 개방돼 탐방객들로 가득 찼다.

광주시는 8일 서석대 주상절리대에서 군부대 후문을 지나 지왕봉, 인왕봉을 거쳐 부대 정문으로 나오는 0.9km 구간을 개방했다.

따뜻한 햇살 아래 선선한 바람까지 부는 완연한 가을 날씨 속에 탐방객들은 환한 표정으로 산을 올랐다.

이날 2만여명이 무등산을 찾았고 이 중 5천명 이상이 정상구간을 오른 것으로 광주시는 추산했다. 탐방객들은 광주 도심이 한눈에 보이는 장관재에 멈춰서 도시락을 꺼내 먹으며 여유를 즐겼다.

지왕봉 옆 전망대에서는 무등산에 둘러싸인 광주 시가지를 조망하면서 연신 감탄했고 비경을 카메라에 담느라 분주했다.

강기정 광주시장도 정상에 올라 ‘무등산 편지’를 낭독하며 공군과 상시 개방 협의 상황을 알렸다. 광주시는 공군 등과 연말까지 상시 개방 협의를 마쳐 내년 1월 1일 새해 일출을 시민들이 무등산 정상에서 맞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탐방객들은 무등산 정상을 56년 만에 시민 품으로 돌릴 수 있다는 소식에 손뼉을 치며 반기기도했다.

/ 최준용 기자

새 국어 교육과정에 ‘순우리말’ 들어갈까…“다양한 방안 모색중”

2015년 교육과정부터 성취기준서 빠져

새 국어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순우리말(토박이말)을 넣어야 한다는 관련 단체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실현 여부가 주목된다.

8일 교육부에 따르면 국어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연구팀은 2022 개정 국어 교육 과정에 순우리말 교육을 성취기준 일부나 해설, 고려사항 등으로 넣는 안을 고민하고 있다. 2009년, 2011년 국어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는 “다양한 고유어(토박이말)를 익히고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기른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엔 이 내

용이 빠졌고, 최근 공개된 2022년 개정 교육과정 시안에도 담기지 않았다.

지난 1일 토박이말바라기, 전국초등국어교모인, 전국국어교사모임 등 교원과 한글 단체들은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공문을 보내 개정 교육과정에 순우리말 관련 성취기준을 넣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열린 국어 과목 공청회에도 참석해 같은 주장을 했다.

이에 개발팀은 순우리말 교육 내용을 ‘성취기준’ 일부에 넣는 안, ‘성취기준 해설’이나 ‘영역 성취기준 적용시 고려사항’



에 명시적으로 보완·수정하는 안을 우선 고민 중이라고 교육부는 전했다.

이중에서 성취기준에 직접 명시하는 것이 교과서 제작이나 교과목 반영 등에 가장 영향력이 크다. 다만 정부는 최근 학

생들의 학습량을 좌우하는 성취기준을 늘리지 않는 방향으로 과정을 설계하고 있는 데다 새로운 분야의 성취기준도 추가되고 있어 성취기준을 다시 추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 백수민 기자

‘경기도민의 날 주간’ 문화시설 이용료

일부 지역화폐로 환급

경기도는 ‘도민의 날(10월 18일) 주간’인 17~23일 도내 박물관, 미술관 등 35개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도민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환급액은 문화시설 이용료 결제액이 1만원 이상인 경우 5천원, 3만원 이상은 1만원, 5만원 이상은 1만5천원이다.

문화시설이 소재한 시·군의 지역화

폐 카드에 충전해주며 현장에서 신규 카드 발급도 가능하다. 환급받은 지역 화폐는 3개월 이내 사용해야 한다.

경기도민의 날은 ‘경기(京畿·서울의 외곽지역)’라는 지명을 쓰기 시작한 연

도인 1018년(고려 현종 9년)을 끊는 10월 18일로, 2018년 정명(定名) 1천 년을 맞아 처음 제정됐다.

/ 이승호 기자

제6회 예산장터 삼국축제

2022.10.14 ~ 20. 7일간 백종원 국밥거리 일원

- 18,500송이 국화전시! 국향대전
- 전국여성댄스경연대회! 시우파
- 백종원의 먹거리대전
- 삼국축제 야행! 대회천 유통전시
- 예산 글로벌푸드 챔피언십 요리대회

| 주최·주관 | 예산군 예산문화원 | 문의 | 070-4227-5417 | <https://yesansamguk.kr>

레미콘업계 조업중단 현실화하나

내일 시멘트업계와 재협상

시멘트 가격 인상에 반발하면서 조업 중단을 예고한 중소 레미콘업계가 7일 시멘트업계와 협상에 나섰지만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이에 두 업계는 8일 다시 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중소 레미콘업계와 시멘트업계는 동반성장위원회, 중소기업중앙회 중재로 서울 강남구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에서 만났다.

중소 레미콘업계는 시멘트업계에 하반기 가격 인상분을 내년 3월 1일자로 적용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멘트업체들은 원자잿값 인상을 이유로 올해 상반기 대형 시멘트 가격을 17~19% 인상했고, 하반기에도 또 한 차례 가격을 인상하면서 현재 대형 시멘트 공급 단가는 10만5천~10만6천원 수준으로 올랐다.

시멘트사가 올해만 가격을 최대 35%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시멘트 가격 기습인상 규탄대회에서 중소레미콘업체 대표 등 참가자들이 가격인상 철회를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올리면서 원가 부담이 급등하자, 중소 레미콘업체에서는 적정한 납품단가를 보장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이에 중소 레미콘업체로 이뤄진 한국 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는 오는 10일

부터 무기한 조업 중단에 돌입한다고 예고한 상태다.

이 경우 전국 건설공사 현장에서 조업 차질이 불가피해진다.

앞서 중소 레미콘업체 대표 700여명은

지난 8월 2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시멘트 가격 인상 철회를 촉구했고, 정부와 국회에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 김강우 기자

시민단체 “경찰 성매매 단속 때 여성 촬영 중단해야”

인권위에 진정…“얼굴 등 찍은 영상 언론에 배포해 인권 침해”

경찰이 성매매 단속을 하면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고 언론에 배포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는 진정이 제기됐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과 성노동자해방 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한국사이버성폭력 대응센터 등은 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매매 여성의 신체 촬영물 제공 행위는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한 목적 외에 어떤 공익도 인정할 수 없는 반면, 여성의 인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진정 취지를 밝혔다.

이들은 올해 7월 21일 서울 수서경찰서가 성매매 여성의 얼굴 등 신체를 촬영한 영상을 출입기자단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보도자료로 공유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과잉금지원칙과 ‘경찰 수사 사건 등 공보에 관한 규칙’을 위반했다”며 “인권위는 책임자들에 대한 징계를 권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이 7월 20일부터 한 달간 성매매

단속·수사를 받은 경험이 있는 여성 2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속옷 착용 등 신체 노출이 많은 상태에서 촬영 당한 여성 이 7명이었고, 샤워 중 알몸 상태로 찍혔다고 답한 여성도 있었다.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활동가 여름은 “불법 촬영이 사회적 이슈가 된 지금까지도 성매매 여성에 대한 불법 촬영은 단속이라는 이름하에 묵인돼온 것”이라고 말했다.

단체들은 성매매 단속에 초소형 비디오카메라를 동원해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는 수사 관행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김지혜 변호사는 “경찰은 소위 몰래카메라로 불리는 초소형 비디오카메라를 사용해 성매매 여성 이 촬영 사실을 인지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현장 영상을 촬영해왔다”며 “최소침해 원칙과 영장주의를 위반한 위헌적 공권력 행사”라고 비판했다.

/ 양준호 기자

취임 100일 김동연, ‘옛 공관 도민 이관·맞손동행’ 행사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8일 취임 100일을 맞아 옛 도지사 공관인 ‘도담소’에서 ‘현판식(도민 이관식) 및 맞손 동행’ 행사를 열었다.

도담소는 ‘도민을 담은 공간’이라는 의미로 도민 공모전을 통해 이름을 선정했

다.

행사에는 공모전 수상자와 온라인 패널, 꿈나무 기자단, 발달장애인 공연단 등 15명이 참석해 소통의 자리를 가졌다.

김 지사는 “제가 꿈꾸는 경기도는 이런 저런 사정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나

학업에 대한 자유에 제한을 받는 분들에게 고른 기회를 제공하는 경기도, 그리고 경기도민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경기도”라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도담소 현판식은 정말 뜻깊은 행사”라며 “도민과 소통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귀 기울여 경청하고, 도담소 이름 그대로 도민들의 뜻을 담고 도민들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도정을 펼치는데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행사에서는 소외지역으로 불리는 파주 해미루촌 주민들과 이원 생중계 현장 소통도 진행됐다.

현판식 후 김 지사는 참석자들과 인근 수원화성 돌레길을 걸으며 나들이 나온 도민들을 만나 민심을 경청하기도 했다.

/ 정지훈 기자

‘검언유착’ 제보자, 명예훼손 혐의 재판 출석 불응하다 구속



윤우진 前세무서장 관련 재판 수개월 불출석

‘검언유착’ 의혹을 처음 언론에 제보한 ‘제보자’ 지모씨가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관련

재판에 응하지 않다 끝내 구속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최대건 부장검사) 산하 불출

석 피고인 검거팀은 전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지씨에 대해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지씨는 2020년 신라젠 수사와 관련해 채널A 기자들에게 ‘윤 전 서장이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100억원을 요구했다’, ‘일부는 건넨 것으로 알고 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올해 4월 불구속 기소됐으나 최근까지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씨가 출석 명령에 계속 불응하자 지난달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검찰에 강제 구인을 요청했다.

구속된 지씨는 앞으로 구치소와 법정을 오가며 재판을 받게 된다.

/ 김유정 기자

KDIC 예금보험공사



희망이 담긴
당신의 예금

예금보험공사가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해 드립니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1인당 최고 5천만 원까지 예금의 지급을 보장해 예금자를 보호합니다

與, 정부조직개편안 법안 발의 완료…“소속 의원 전원 참여”

주호영 “민주당 정부에서도 의원발의 형태로 정부조직법 처리”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관한 정부의 설명을 청취하고 의원 발의하기 위한 회상 의원총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인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7일 여성가족부 폐지 및 국부가 보훈부 격상, 재외동포청 신설을 골자로 한 윤석열 정부 정부조직 개편안을 담은 법안을 ‘당론’ 성격으로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주호영 원내대표 대표발의로 이런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정부조직 개편 ‘속도전’을 위해 정부 발의 대신 의원 입법을 택한 것으로, 개정안에는 당 소속 의원 115명 전원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은 여가부를 폐지하고 여가부의

청소년, 가족, 여성정책 및 여성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무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한편, 생애주기 정책 및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종합적·전략적 추진체계로서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는 “분산된 생애주기별 정책을 연계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여가부를 폐지하고 기능을 조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밖에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 등 보훈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개편하고 재외동포 관련 정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 소속 의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상 의원총회를 열어 개편안 내용을 논의했다.

화상 의총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접 참석해 정부조직개편안의 내용

을 여당 의원들에게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주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권은희 김미애 의원 2명이 ‘여가부 폐지 기능을 복지부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에 소홀할 수 있으니 피해자 보호에 충실히 하는 안을 내달라’는 의견을 냈고, 그 외 특별한 반대의견은 없었다”고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앞선 의총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야당에도 설명했는데 야당은 보훈처를 보훈부로 승격하는 일과 재외동포청 신설에는 반대하지 않는 것 같다. 다만 여가부 기능 조정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가부 폐지와 기능 조정이 우리 당 대선 공약이었던 만큼, 공약 이행 차원과 정부가 가장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안을 정부가 냈으니까 기급적 도와주고 지원해달라고 민주당에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조직개편안 추진이 이전보다 좀 늦은 감이 있어서 보다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정부 발의가 원칙적으로 바람직함에도 의원 발의로 추진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있다”며 “이전 3차례의 경우를 보니 민주당 정부에서도 모두 의원 발의 형태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 것 같다”고 말했다.

/ 송원기 기자

이순신의 ‘정중여산’ 인용한 이준석

“어느 누구도 탈당 말라”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7일 폐이스북에 “어느 누구도 탈당하지 말고 각자의 위치에서勿令妄動 靜重如山(불령망동 정중여산)”이라고 적었다.

이날 새벽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정지 1년’이라는 추가 징계를 받은 뒤 이 전 대표가 낸 첫 메시지다.

이 전 대표가 인용한 ‘불령망동 정중여산’은 ‘경거망동하지 않고 태산처럼 신중하게 행동할 것’이라는 뜻이다.

이순신 장군이 1592년 임진왜란 중 처음으로 출전한 옥포해전을 앞두고 장병들에게 당부한 말로 알려져 있다.

추가 징계를 받으면서 수세에 몰린

자신의 처지를 임진왜란의 첫 해전에 임하는 이순신 장군에 빗대 향후 정치적 재기의 결의를 다진 것으로 읽힌다.

이와 함께 “어느 누구도 탈당하지 말고”라고 언급, 일각에서 제기되는 ‘신당 창당설’에 선을 그은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1월 3·9 재보궐선거 공천심사 과정에서 당과 갈등을 빚은 김재원 당시 최고위원이 무소속 출마 의사를 밝히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불령망동 정중여산’이란 문구를 올리며 김 최고위원의 탈당을 만류한 바 있다. / 정진양 기자

이재명, 한미일 동해 훈련에 “극단적 친일 국방…정부 사과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7일 한미일의 동해 합동 훈련에 대해 “극단적 친일 행위로 대일 굴욕외교에 이은 극단적 친일 국방이 아니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일본을 끌어들여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을

하면 일본 자위대를 정식군대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전에 ‘자위대가 유사시 한반도에 들어올 수 있지 만’이라고 말한 것이 현실화하는 게 아닌가 걱정”이라며 “외교 참사에 이은 국방 참사다. 대한민국 국방이 대한민국 군사

안보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군사 이익을 지켜주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들은 한미일 군사동맹을 원치 않는데, 한반도 정세에 엄청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이라면서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러다가 혹시 다시 국지전 전쟁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

들이 점점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 직원 3명 자택 등 강제수사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검찰이 네이버의 증거 인멸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지난 6일 네이버 직원 등 3명의 자택과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26일 네이버를 압수수색한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하던 중 PC 등에서 증

거 인멸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직원은 성남FC 후원과 신사옥 건설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FC 후원 의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 주로 있으면서 2016~2018년 두산건설로부터 55억원 상당의 광고 후원금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두산그룹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천여평을 삼업 용지로 용도 변경해줬다는 것이다.

/ 손혜원 기자





The First in Class



국내 최초 1회 투여
관절강내 주사제 신약
시노비안주



시노비안주 [Synovian_{inj.}]

- 교차 결합된 고점도 히알루론산 성분으로 Duration 증대 ¹⁾
- 투여 횟수 감소로 환자 순응도 증대 ²⁾
- 기존 3회 투여 제형 대비 유사한 임상 효과 확인 ²⁾
- 재투여 시에도 지속적인 통증 개선 효과 확인 ³⁾

Reference 1) Rat Data. Data on file. LGLS R&D Center
2) Data on file. LG-HACL010
3) Data on file. LG-HACL013

- 성분 및 함량 : 1프리필드 시린지(3mL)중 BDDE가교 히알루론산 나트륨겔 60mg
- 적응증 : 슬관절의 골관절염
- 용법용량 : 성인: 1회, 1관을 슬관절강 내에 투여하나, 증상에 따라
투여 간격(6개월 이상)을 고려하여 적절히 투여한다.
- 사용상의 주의사항
 - 금기 1) 이 약 및 이 약의 구성성분에 대해 과민증의 병력이 있는 환자
 - 2) 투여 관절강에 감염 또는 심한 염증이 있는 환자
 - 3) 투여부위의 피부에 감염 또는 피부질환이 있는 환자
- 보험코드 : 668902701
- 상세한 제품 정보는 제품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객상담전화 080.023.5757 / www.lgchem.com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기정 광주시장 “군공항 개발제한구역 총량 관리 전환” 건의

“지자체 광역계획권별 총량→정부 국책사업 총량으로 관리” 요청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후 울산시청에서 열린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 군 공항 주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정부의 국책사업 해제 가능 총량 범위에 포함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강 시장은 7일 울산시청에서 열린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의 원만한 추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총량 관리 방안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에서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광역계획권별 총량과 정부의 국책사업 총량으로 구분된다.

광주 군 공항 주변은 현재 광역계획권별 총량에 포함돼 이 일대를 해제할 경우 총량 제한에 걸려 정작 신규 산단 조성 등에 필요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어려워진다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강 시장은 “군 공항 이전과 같은 국가 안보 정책 관련 사업은 국책사업 해제 가능 총량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지역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광역계획권별 총량 활용 면적을 확보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새 정부 들어 처음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주요 부처 장관, 시·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 노승만 기자

‘행방불명’ 사유 병역 미이행자 967명 재난지원금 수령

‘행방불명’으로 군대에 가지 않고 있으면서도 정부의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이들이 1천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들 가운데 상당 인원을 추적해 병역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7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설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병역 자원이 모자라는 상황에 의무자 관리가 심각하다”며 “행방불명으로 병역 의무를 안 하고 있는데 재난지원금을 받은 인원이 967명이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이에 “967명이 (재난지원금) 수령한 것을 확인했다”면서 “그 인원을 추적해서 732명을 색출했고,

현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청장은 왜 나머지를 찾지 못하느냐는 설 의원의 질문에는 “행정안전부, 교정시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행방이나 정보를 받아 수사하면 빠른데 개인 정보 보호 측면에서 제공을 못한다고 한다”며 “그것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병무청은 병역법을 개정하려 추진 중이다”라고 답했다.

이 청장은 또 “재난지원금을 받은 사람들 뿐 아니라 올해는 산불, 수해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도 지원금을 받았다. 그 사람들까지 해서 현재 계속 찾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신은수 기자



7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와 병무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기식 병무청장(오른쪽)이 답변하고 있다.

/ 노승만 기자

박진, 캐나다와 14일 외교장관회담…정상회담 후속조치 논의

양국관계 강화 방안 논의

박진 외교부 장관이 오는 14일 멜라니 졸리 캐나다 외무장관과 서울에서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한다고 외교부가 8일 밝혔다.

양 장관은 회담에서 지난달 열린 한-캐나다 정상회담 합의사항의 이행

계획을 점검하고 내년 수교 60주년을 맞는 양국관계의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지난달 캐나다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

또 ▲규범에 기반한 국제체제, 민주주의, 자유, 인권 및 양성평등 수호 ▲안보 및 국방 파트너십 강화 ▲경제 번영과 경제안보 증진, 공급망·핵심광물·과학기술혁신 협력·교역·투자촉진 ▲기후변화 및 환경문제 대응, 에너지 안보 지원,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 개발 ▲보건 및 문화 파트너십 심화 등이 담긴 성명을 발표했다. / 권유희 기자

육사에 ‘6·25 참전’ 美사관학교 졸업생 추모비 추가 건립



육군사관학교와 주한미군전우회 코리아챔터는 7일 교내 ‘웨스트포인트 추모공원’에서 14명의 6·25 전쟁 전사자를 기리는 추모비 제막식을 열었다. 추모행사 후 전성대 육군사관학교장(왼쪽에서 다섯째)과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6·25 전쟁에 참전했던 미국 육군사관학교(웨스트포인트) 졸업생들의 추모비가 서울을 육사 캠퍼스에 추가로 건립됐다.

육군사관학교와 주한미군전우회 코리아챔터는 7일 교내 ‘웨스트포인트 추모공원’에서 14명의 6·25 전쟁 전사자를 기리는 추모비 제막식을 열었다.

14명은 1946년 미국 육사 졸업생 가운데 6·25전쟁에서 전사한 이들이다.

6·25전쟁 당시 1945년부터 1951년 사이 미국 육사를 졸업한 7개 기수 초급장교들의 희생이 가장 커다고 육사는 전했다.

육사와 코리아챔터는 이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해 지난 1996년 교내에 웨스트포인트 추모공원을 조성했다.

이번을 포함해 5개 기수의 추모비가 건립됐고, 내년도 정전 70주년이자 한미동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식약처장, 감기약 대란 우려에 “쓸 카드 다 써”…약값인상 검토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7일 감

기약 수급 불안정 대책으로 약값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며 “식약처에서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썼다”고 말했다.

오 쳐장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기약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데 대한 대책이 있나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오 쳐장은 감기약 수급과 관련해 “해열진통제 중 특수 조제용 성분, 아세트아미노펜 650mg이 현재 51원인데 일반용은 한정당 200원이기 때문에 51원의 약을 생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고 문의 : 1533-1545

다고 오 쳐장은 설명했다.

오 쳐장은 “약가 조정을 복지부와 협의하고 있다”면서 “약가가 오히려 옛날보다 줄어들어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이날 국감 업무보고에서 제약사 해열진통제 생산 참여와 증산을 독려하기 위해 약값 인상 등 행정·재정지원 방안을 업계 및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쳐장은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650mg이 현재 51원인데 일반용은 한정당 200원이기 때문에 51원의 약을 생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민수호 기자

“입구 길 터주세요”…‘불금’ 강남 클럽 불시 마약 단속

7일 오후 10시 15분, 서울 강남역과 신논현역 사이의 유흥업소 밀집 골목.

한 클럽에 경찰과 소방관 등 여러 명이 일시에 진입하자 근처에서 ‘불금’을 즐기던 시민들이 순식간에 클럽 입구 주변을 에워싸며 응성거렸다.

“이파 여기 가려 했는데 무슨 일이지?” 라며 의아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범죄인가 혹시 마약?”이라며 호기심을 드러내는 반응도 있었다.



7일 밤 서초경찰서·서초소방서·서울시청·서초구청 공무원들이 합동 점검 및 단속을 위해 서울 강남의 한 클럽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날 합동단속반은 최근 늘고 있는 마약 및 물가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했다.

클럽에 들이닥친 이들은 서초경찰서와

서초소방서, 서초구청, 서울시청 직원 등

총 51명으로 구성된 합동 마약 단속반이다. 이들은 이날 하루 관내 대형 클럽 4곳

을 불시 단속했다.

김한곤 서초경찰서 형사과장은 단속 시작 전 강남역 10번 출구 인근 공터에서 단속반을 4개 조로 나눈 뒤 조별로 작전을 지시했다.

김 과장은 “최근 3개월 동안 클럽들을 대상으로 한 마약 관련 신고가 종종 접수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며 “효율적 단속을 위해 각 조는 점검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해달라”고 당부 했다.

서초경찰서는 최근 관내 클럽에서 이

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이 유통되고

경찰은 아울러 클럽에서 배출된 쓰레기 등을 확인해 실제 마약류 투약이 이뤄진 정황을 확인하고서 이번 단속에 나섰다. 단속반이 차례로 클럽 내부로 들어가자 입구를 지키고 선 건강한 체격의 경호원들이 자연스럽게 길을 터줬다. 평소 위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다. 체념한 듯 시선을 피하는 경호원도 있었다.

단속이 시작되자 내부는 일순간 어수선해졌다. 일부 손님은 뒤를 돌아보며 도망치듯 클럽을 빠져나오기도 했다.

자정을 넘겨 2시 30분 가량 진행된 이날 단속에서 실제 마약 유통이나 투약 등의 불법 행위는 적발되지 않았다.

단속반은 이날 마약 범죄 외에도 불법 카메라 설치 및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 안전시설 관리 상태 등도 함께 점검했다.

/ 송종호 기자

창원서 전국도서관대회·전시회 학술강연·문화전시 등 진행

경남 창원시는 오는 12일부터 14일까 지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제59회 전국도서관대회·전시회’를 연다고 8일 밝혔다.

이 행사는 전국 도서관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학술강연·문화전시 등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도서관 관련 최신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매년 열린다.

사단법인 한국도서관협회가 주최·주관하고, 창원시 등이 후원한다.

코로나19로 3년 만에 현장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다시 일상으로! 함께하는 도서관’을 슬로건으로 펼쳐진다.

전국 도서관 직원 등 3천500여명이 이 기간 창원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46개의 학술강연에 더해 도서관 첨단기술 및 제품을 소개하는 도서관문화전시회도 함께 선보인다.

창원시는 대회 첫날인 12일부터 이를 간 특별 버스를 운행해 도서관 우수 성과를 홍보한다. / 서정미 기자

새 교육과정 총론 공청회 정보과목 수업시수 확대 명시 검토



‘교육의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는 총론의 성격을 고려해 기존 시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과학과의 설립 취지를 고려해 통합과학 과목을 축소 편성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 역시 타 계열 특목교과의 형평성, 선행학습 우려를 감안해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정보과목 수업시수 기준을 명시해달라는 요구와 관련해서는 타 교과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기존안을 유지하도록 학교에서 개최한다. 교육부는 앞서 ‘국민참여소통채널’을 운영해 교육과정에 대한 국민 의견을 접수했다. 교육과정 정책연구진은 이 가운데 총론에 반영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했다.

교육부는 올해 12월 새 교육과정을 확정·고시한다.

‘생태교육’과 ‘노동교육’을 교육목표에

제시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으나 연구진은

/ 변수호 기자

여가부 폐지 과정 ‘안갯속’…“행안부와 소통 기록 안 남겨”



여가부 폐지 정부조직 개편방안 관련 설명회

여성가족부 폐지 밀그림이 구체화된 가운데 여가부가 이와 관련한 자체 회의록뿐 아니라 정부조직 개편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와의 소통 기록도 남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 주요 공약사항이자 종양행정 기관 한 곳을 통째로 없애는 중대한 작업 과정이 국회, 국민과 소통 없이 불투명하게 이뤄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현숙 장관 “중간 과정 중요하다고 생각 안해”

8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실에 따르면 의원실이 최근 여가부에 정부조직 개편안 마련 과정에서 행안부와의 협의·소통 실적을 묻자 여가부는 “유선 통화, 면담 등으로 수시 협의했으며, 공식 면담이 아니므로 기록이 없다”고 답했다.

여가부는 또 “국무조정실과는 별도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의원실은 전했다.

김현숙 장관은 지난 6일 학교 안팎 청소년 지원 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기자들이 정부조직 개편안에 여가부 입장이 충분히 반영됐는지를 묻자 “행안부 장관이나 담당자들과 충분히 소통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여가부의 설명대로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면 소통 내용은 알 길이 없는 상황이다.

김 장관은 같은 날 “여가부가 무슨 이야기를 했고, 다른 부처는 뭐라고 했는지 중간 과정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최종 결과를 어떻게 갖고 오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장관은 여가부가 폐지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꾸린 전략추진단의 전문가 회의를 통해서 수렴한 의견도 행안부에 전달했다고 밝혔지만, 이 회의체 속기록 역시 남기지 않았다.

민주당 여가위원회에게 제출한 전략추진단 간담회 결과는 회의마다 주요 내용이 한 문장으로 정리돼 있는데 그 내용이 한 문장으로 정리돼 있는데 그

쳤고, 참가자 성명은 성만 드러내고 이름은 가려져 있었다.

여가부는 이에 대해 “참석자의 자유로운 발언을 보장하기 위해서이며, 전문가와 정책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는 간담회이기 때문에 회의록 의무 작성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여성계에서는 취임 직후부터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겠다”고 강조하던 김 장관의 입장과 모순된 행동이라고 지적한다.

권수현 여세연(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대표는 “여론을 듣겠다고 했으면 어떤 의견을 바탕으로 지금의 계획이 나왔는지 설명해줘야 하는데, 결과만 내놓으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 황희정 기자

시범사업 기간

2022년 7월 4일 ~

2023년 6월 30일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포항남부지사
054-280-4170
대표번호 1577-1000

상병수당이란?

취업자가 업무와 관련없는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

포항시

아픈 근로자도 소득 걱정 없이 쉬세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함께합니다





전국 최고 청정지역 양구!

천안경 고풍질

농산물



 양구명품관

033)480-7755~8
www.yanggugun.co.kr

美, 반도체장비·AI용 칩 對中 수출 통제

AI·슈퍼컴퓨터 칩엔 화웨이식 제재…“미국 안보·외교이익 보호”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생산기업에 미국산 첨단 반도체 장비 판매를 금지하고 인공지능(AI) 및 슈퍼컴퓨터에 사용되는 반도체칩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는 수출통제 조치를 공식 발표했다.

미국이 반도체와 관련해서 개별 기업이 아닌 특정 기술을 기준으로 중국을 겨냥해 포괄적이면서 고강도의 조치를 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슈퍼컴퓨터용 반도체칩과 관련해서는 이른바 화웨이식 제재도 포함되면서 중국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미국 상무부는 7일(현지시간) 특정 첨단 컴퓨팅 반도체 및 수퍼컴퓨터용 반도체칩 등에 대한 제한적 수출 통제 및 특정 반도체 제조 장비에 대한 새 수출 통제 방침을 발표했다.

상무부는 “두 건의 규칙으로 발표된 이번 수출 통제는 중국이 첨단 컴퓨팅 칩을 확보하고, 슈퍼컴퓨터와 첨단 반도체를 개발·유지하기 위한 능력을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컴퓨터 내 반도체칩

그러면서 “중국은 이 정치와 능력을 대량살상무기(WMD)를 비롯한 첨단 무기

시스템 생산, 군의 결정과 계획 및 물류의 속도와 정확성 개선, 자동 군사 시스템, 인권 유린 등에 사용하고 있다”며 수출통제 사유를 밝혔다.

이날 발표된 통제 조치는 우선 미국 기

업이 특정 수준 이상 칩을 생산하는 중국 기업에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를 판매할 경우 별도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18nm(나노미터·10억분의 1m)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 플레이시 ▲핀펫(FinFET) 기술 등을 사용한 로직칩(16nm 내지 14nm) 등을 초과한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기술을 미국 기업이 중국에 판매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와 관련, 중국 내 생산시설이 중국 기업이 소유한 경우 이른바 ‘거부 추정 원칙(presumption of denial)’이 적용돼 수출이 사실상 전면 금지된다. 다만 중국 내 생산시설을 외국 기업(multinationals)이 소유한 경우에 대해서는 개별적 심사로 결정하겠다고 미국 정부는 밝혔다.

/ 송민서 기자



자포리자 원전서 경계 근무 중인 러시아 군인

IAEA “자포리자 원전에 또 포격…한때 비상발전 의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교전 속에 방사성 물질 유출 우려가 커진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자력발전소 시설에 포탄이 떨어져 전력선이 파손되는 사태가 또 벌어졌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7일(현지 시간) 성명을 통해 전날 자포리자 원전 외부 시설에 포격 피해가 발생하면서 150kV 외부 전력선이 손상됐다는 보고를 받았다

고 밝혔다. 해당 전력선이 끊어지자 비상용 디젤 발전기가 1시간30분간 가동하면서 원자로에 전원을 공급했다고 IAEA는 설명했다. 원전과 연결된 전력선 파손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다.

원전 내 냉각 시스템에 전력이 공급되지 못하면 원자로 과열로 핵연료봉 달발이 녹는 노심용융(멜트다운)이 발생하고,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는 중대 사고가 생길 수 있다. 현재 자포리자 원자로 6개는 구글은 원전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원전 내 숙련된 직원들이 문제를 극복할 방법을 찾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건 원전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지속 가능한 방법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키우에서 만나 원전 안전구역 설정 방안을 협의한 그로시 사무총장은

내주 초 러시아 모스크바를 찾아 안전구역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 배해미 기자

중국 7중전회 내일 개막…‘시진핑 대관식’ 마지막 준비

당대회서 통과될 당헌 개정안 토론…시 ‘핵심’ 지위 공고화 전망

‘시진핑 대관식’을 최종적으로 준비할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7차 전체회의(7중전회)가 9일 베이징에서 개막한다.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지난 8월 30

일, 제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20차 당대회)가 10월 16일 개막하고, 그에 앞서 10월 9일부터 7중전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산당 ‘최고 영도기관’인 중앙위원회는 5년에 한 번 열리는 당 대회 사이에 7차례 전체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관례로 자리 잡았다.

19기 중앙위원 200여 명과 후보위원 170여 명 등 370명 이상이 모여 비공개리에 개최하는 7중전회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집권 연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당대회를 최종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이다.

회의에서는 16일 개막하는 20차 당대회 개최와 관련한 세부 일정을 결정하고, 당장(黨章·당헌) 개정안 등에 대해 토론을 하게 된다. 그와 더불어 지난 5년간 당의 성취를 정리하고 현재의 정세와 당의 임무에 대해 분석 및 논의한다.

홍콩 명보에 따르면 당 총서기인 시 주석은 20차 당 대회에서 할 업무보고 초안을 7중전회 때 중앙위원들에게 설명한다. 이어 중앙위원들은 토론을 거쳐 보고

서에 대한 심의를 20차 당 대회에 제청하게 된다.

당장 개정안에는 시 주석의 ‘핵심’ 지위를 강조하는 이른바 ‘두 개의 확립’과 ‘두 개의 수호’가 새롭게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명보 등 홍콩 매체발로 제기됐다.

‘두 개의 확립’은 시 주석의 당 중앙 핵심 및 전당(全黨) 핵심 지위 확립과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시진핑 사상)의 지도적 지위 확립을 말한다.

‘두 개의 수호’는 시 주석 당 중앙 핵심 지위 및 전당 핵심 지위, 그리고 당 중앙의 권위와 집중통일영도를 각각 결연히 수호한다는 의미다. 당 대회에서 최종적으로 이뤄질 당장 개정을 통해 시 주석의 당내 절대적 권위가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당 대회가 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수도 베이징은 코로나19 방역 등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

/ 배순호 기자

구글, 내년 일본에 첫 데이터센터 오픈

구글이 2023년 일본에 첫 데이터센터를 오픈한다고 순다르 피차이 최고경영자(CEO)가 7일(현지시간) 밝혔다.

일본 지바현 인자이시에 들어서는 이 센터는 구글이 2024년까지 일본에 투입하기로 한 7억3천만 달러(1조원) 규모 투자의 일부다. 이 시설은 대만과 싱가포르에 이어 아시아에서는 구글의 세 번째 데

이터센터다. 피차이 CEO는 자신의 블로그에서 “이 새로운 시설은 구글의 툴과 서비스 운영을 가속화하고 지역 경제 활동과 일자리를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3년 만에 일본을 찾은 그는 2019년에는 구글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설립을 위해 방문하기도 했다.

/ 김성민 기자

SAMSUNG

T7 Shield

압도적 내구성의 포터블 SS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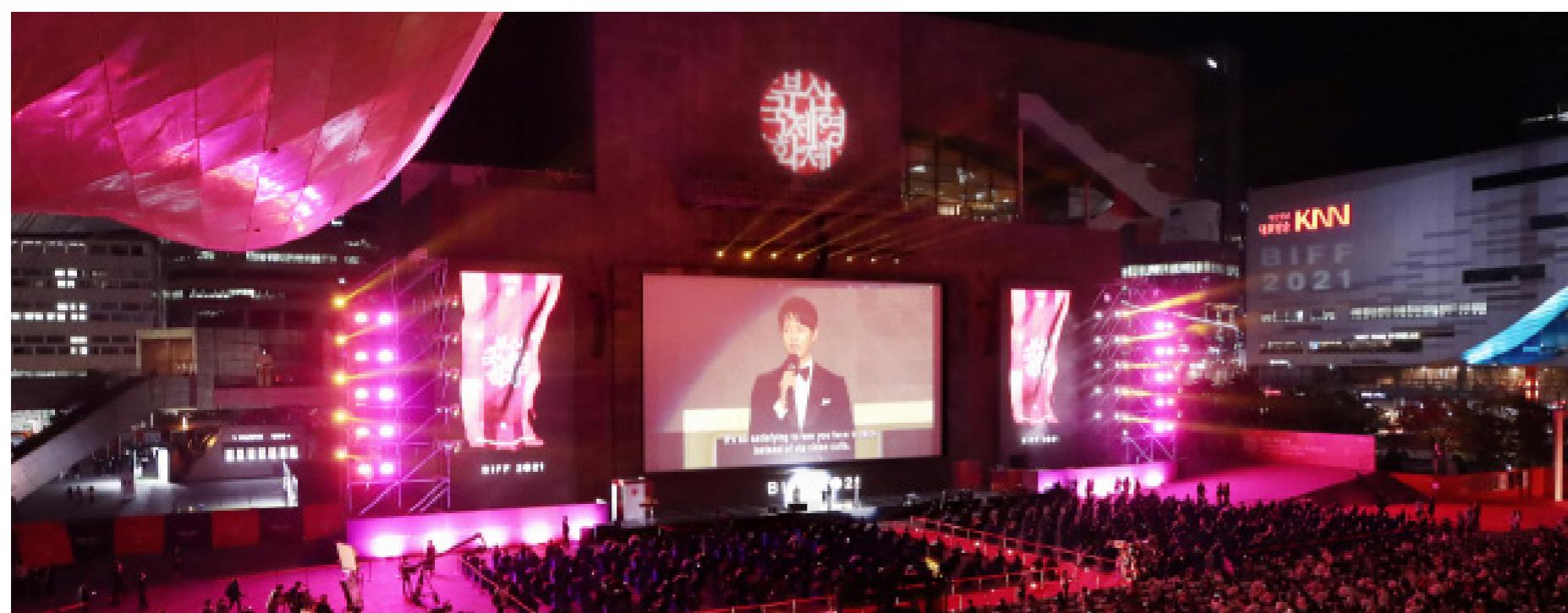
연속 읽기 성능 1,050MB/s | 연속 쓰기 성능 1,000MB/s

IP65 등급 방수·방진

최대 3m 낙하 충격 보호

*연출된 이미지입니다. 제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s://samsung.com/portable-ssd>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0월은 축제의 계절'...부산 곳곳서 볼거리·즐길거리 풍성



지난 5일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 전당에서 제27회 부산국제영화제(BIFF) 개막식이 진행되고 있다.

3년 만에 재개된 대면 행사에 영화제 북적, 15일에는 BTS 콘서트

10월을 맞아 부산지역 곳곳에서 축제가 잇따라 열리면서 부산 전역이 거대한 축제장을 빙둘케 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열리지 못했던 축제 대면 프로그램이 3년 만에 전면 재개되면서 시내 곳곳에 모처럼 활기가 돌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에서는 지난 5일부터 시작된 부산국제영화제가 오는 14일까지 열흘간의 일정으로 열리며 영화 팬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정상 개최된 행사를 5천장에 달하는 개박식 입장권이 순식간에 매진되고, 관객들이 빠르게 앉아 있는 모습이 공개되며 기대감을 모았다. 한글날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황금연휴 사흘 동안은 주 무대인 해운대와 남포

동 일대에서 영화배우와 감독들의 관객 만남 행사가 이어지면서 많은 영화 팬들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된다.

71개국 243편의 영화가 30개 극장에서 쉴 새 없이 상영되고, 올해는 지역 밀착형 사인 '동네방네 비프행사'가 부산 17곳에서 확대되면서 부산 전역이 영화 팬을 위한 공간으로 바뀌었다.

금정구 범어사, 사하구 다대포해변공원, 서구 송도오션파크, 수영구 밀락더마켓, 동구 북항 친수공원과 차이나타운 등 부산 도시 정체성과 역사성을 갖춘 곳에서 행사가 열리며 관광객에게 즐거움을 준다.

내주 주말인 15일에는 그룹 방탄소년단의 '부산엑스포 유치 기원' 무료 콘서트

가 열릴 예정이라 부산을 들썩이게 한다.

5만여명의 전 세계 아마(방탄소년단 팬클럽)가 부산에 집결할 것으로 예고되며 전세편 항공기가 추가로 뛰고, 도시철도와 KTX가 증편 운영되는 등 관련 업계도 행사 준비에 분주하다.

발 빠르게 관련 이벤트를 준비한 호텔들뿐 아니라 모텔과 소규모 숙박시설까지 예약이 꽉 차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자체가 준비한 축제들도 잇따른다.

부산역 일대 차이나타운에서는 14~16일 거리 전역에 홍등이 내걸리며 중국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축제가 열린다.

14~16일 광안리 해수욕장과 수영사적 공원 일대에서는 민속체험과 어방그물끌기, 드론 라이트 쇼, 각종 체험행사를 즐

길 수 있는 광안리 어방축제가 준비됐다. 남구에서는 야간 관광 테마를 주제로 '용호별빛 축제'가 13일부터 16일까지 펼쳐지고, 같은 기간 동래읍성 북문 일대에서도 '조선 동래를 만나다'는 슬로건으로 역사교육형 체험 축제가 펼쳐진다.

축제는 이달 말까지 계속 이어진다. 21일에는 서구에서 '부산고등어축제'가 열리고, 22일 중구에서는 부산국제가요제가 펼쳐진다.

27일부터 사흘간은 부산시가 주최하는 케이팝(K-POP) 축제인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이 열린다.

30일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리는 메인 콘서트는 마마무, 강다니엘, 브레이브걸스, 르세라핌, 유주 등 13팀의 유명 가수들이 총출동할 것으로 알려져 케이팝 팬들의 설레게 한다.

/ 고광복 기자



새옷 갈아입은 통영 '동피랑' 벽화마을

전국에 널리 알려진 통영 동피랑 벽화마을이 새 그림으로 관광객들을 맞는다.

통영시는 8일 새 벽화를 알리는 '렛츠고(Let's go) 동피랑 2022' 개막식과 동피랑 마을잔치를 했다. 동피랑은 '동쪽 끝에 있는 높은 바랑'(비탈의 사투리)이란 의미다.

통영 시가지 중심지 강구안 언덕에 위치한 달동네가 동피랑이다.

동피랑은 한때 재개발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2007년 지역민들이 집집장, 벽에 벽화를 하나씩 그리기 시작하면서 미술이 살아났다.

입소문, SNS를 타고 동피랑 벽화마을이 이른바 '사진발' 잘 받는 곳으로 알려지면서 전국에서 관광객이 찾는 이색 명소가 됐다.

/ 김채원 기자

'마틸다' '캣츠' 가족 뮤지컬 잇달아 무대에

20~30대 마니아 관객 위주인 국내 뮤지컬 시장에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가족 뮤지컬과 중장년을 겨냥한 뮤지컬이 찾아온다.

이달 5일 서울 구로구 디큐브아트센터에서 개막한 뮤지컬 '마틸다'는 아동문학의 거장 로알드 달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작품. 4년 만의 국내 재공연으로, 초연 당시 어른부터 아이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세련된 동화 같은 작품이라는 평을 받았다.

9~11세의 아역 배우들이 주인공으로,

오디션을 통해 뽑힌 아역 배우들과 베�테랑 뮤지컬 배우들의 연기 호흡이 관전 포인트다.

'캣츠'는 12월 22일 경남 김해를 시작으로 세종(12월 30~2023년 1월 1일), 부산(1월 6~1월 15일), 서울(1월 20~3월 12일)에서 관객과 만난다.

서울시뮤지컬단 김덕희 단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기존의 뮤지컬 관객층이 주로 20~30대 여성이었다면 50대 이상의 관객이 즐길 작품도 나와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 백혜련 기자



1896년 창간된 '대조선독립협회회보'와 1908년 창간된 우리나라 근대 종합잡지 효시 '소년'(왼쪽)

126년 국내 잡지 역사 한눈에...내달 첫 '잡지주간' 행사

전시·콘서트 등 다채...잡지협회 "매출 줄어도 전문지 5천800종"

126년 역사를 자랑하는 국내 잡지의 문화적 가치를 확산하고자 '잡지주간 2022' 행사가 처음 마련된다.

㈔한국잡지협회(백종운 회장)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다음 달 1일부터 열흘간 '잡지주간 2022'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 8월 제3차 정기간행물 진흥 5개년 기본계획(2022~2026)을 발표하면서 잡지의 날(11월 1일)이 포함된 기간을 잡지주간으로 처음 지정했다. 올해는 잡지협회 창립 60주년이 되는 해다.

잡지주간의 집행위원회장을 맡은 백동민 잡지협회 수석부회장은 "잡지산업 매출은 2000년대 초반 해도 2조 원에 육박했지만, 지금은 7천500억 원 정도로 급격히 떨어졌다"며 "하지만 독자층이 세분화하며 종수가 늘어나고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마니아층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전문 잡지는 5천 800여 종이 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잡지주간 행사는 '잡지가 있는 삶'을 주제로 근현대 잡지 특별전, 제15회 잡지미디어 콘텐츠 공모전 전시회, 제57회 잡지의 날 기념식, 매거진 콘서트, 코리아 매거진 콘퍼런스

등으로 꾸며진다.

근현대 잡지 특별전은 '오늘, 당신의 잡지'란 주제로 국립중앙도서관 본관 1층 전시실에서 오는 28일부터 12월 31일 까지 열린다. 최초의 잡지 형태로 1896년 창간된 '대조선독립협회회보'와 1908년 창간된 우리나라 근대 종합잡지 효시인 '소년'을 비롯해 150여 종의 근·현대 잡지가 전시돼 시대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

제15회 잡지 미디어 콘텐츠 공모전시는 한국잡지정보관내 M미술관에서 오는 2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된다. 독자가 잡지를 주제로 제작한 다양한 콘텐츠 중 우수 작품을 시상하고 전시하는 행사다.

잡지의 날 기념식은 11월 1일 국립극장 달오름극장에서, 매거진 콘서트는 11월 5일 서울 송파구 책박물관 어울림홀에서 열린다. 코리아 매거진 콘퍼런스는 11월 10일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4차 산업시대 매거진 미디어의 미래를 주제로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잡지협회 홈페이지(www.magazin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최준호 기자



NH농협은행 NH농협생명 NH농협손해보험 NH투자증권 NH-Amundi자산운용 NH농협캐피탈 NH자산운용 NH농협리츠운용 NH농협카드

jw 중외제약

효과를 높여보세요
당뇨병 걱정없이, 약효까지 강력하게!

강력한 이상지질혈증 솔루션
리바로젯®

효과성

- 복용 후 50% 이상 LDL-C 감소효과 입증¹⁾
- 저·중등위험군은 물론, 고위험군 이상으로 넓어진 치료범위²⁾

안전성

- 당뇨병 안전성을 공인 받은 유일한 스타틴
- 32개국 당뇨병 안전성 공인³⁾



1), 2) 리바로젯 3상 허가임상 결과 3) 32개 국가 현황 • 유럽(13개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핀란드, 네덜란드, 스웨덴,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포르투갈, 그리스, 노르웨이 • 동유럽(5개국): 러시아, 폴란드, 우크라이나, 조지아, 아르메니아 • 동아시아(5개국): 싱가포르, 대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카자흐스탄 • 중동(8개국): 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카타르, 요르단, 오만, 레바논, 바레인 • 아프리카(1개국): 모로코

부산시, 열흘 앞둔 BTS 콘서트 행사장 현장 점검

부산시는 2030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기원하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콘서트를 열흘 앞둔 5일 오후 콘서트장인 아시아드 주경기장 등을 현장 점검한다고 밝혔다.

BTS 부산콘서트 총괄지원 전담팀 단장인 이병진 부산시 행정부시장과 BTS 소속사 하이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객 이동 경로의 안전사고 우려 등을 집중해서 점검하고 안전요원 배치와 근무 방안을 검토했으며, 시는 또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자원봉사단체 등과 함께 '따뜻한 손님맞이 범시민 캠페인' 출범식

을 하고 시내 주요 관광지 등의 환경을 정비할 계획이다.

콘서트 당일 부산역, 김해공항, 도시철도 환승역 등 관객의 주요 이동 거점에 안내요원과 외국인을 위한 통역요원을 배치하고 2030부산엑스포 유치 홍보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시는 콘서트 전날인 오는 14일부터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경찰, 소방 등 관련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 김민경 기자



트로트 가수 김다현
청주시 홍보대사 위촉



대구 달서구 주민들 “새 진행자 전국노래자랑 먼저 녹화했는데”

새 MC 김신영씨 달서구서 첫 녹화…방송은 하남시가 먼저

“진행자가 바뀌고 처음 녹화하는 역사적인 날이라더니…”

대구 달서구 주민들 사이에서 모 방송 사의 전국노래자랑 프로그램 방송 일정과 관련해 불만이 나오고 있다. 해당 방송

사는 지난달 3일 오후 대구 두류공원에서 전국노래자랑 대구 달서구편 녹화를 했다. 그날은 단순한 녹화가 아니라 최근 타

최근 TV조선 ‘화요일은 밤이 좋아’ 진

성가요제에서 우승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 민수호 기자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방송 제작진이 녹화에 앞서 관객들에게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다. MC가 바뀌고 첫 녹화가 대구 달서구편”이라고 하자 운집한 3만여명의 시민이 환호하는 등 열기가 뜨거웠다.

중앙일간지 등도 앞다퉈 김씨의 첫 녹화 현장을 찾아 분위기를 전할 정도였다.

일부 언론은 김씨의 고향이 대구라는 점을 들어 “대구가 송해 선생이 묻히고 김신영씨가 태어난 곳”이라며 새 진행자의 대구 첫 녹화 의미를 부각하는 등 각별한 관심을 나타냈다.

한 신문은 관련 보도에서 김신영이 진행하는 ‘전국노래자랑’ 첫 무대가 10월 16

일 낮 12시 10분에 방송된다고 구체적으로 못을 박기도 했다. 당시 녹화장을 찾은 지역 주민이나 관련 보도를 접한 독자들은 당연히 대구 달서구편이 새 진행자가 출연하는 첫 방송이 될 것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새 진행자의 첫 방송은 대구 달서구편이 아니라 경기도 하남시편으로 확인되면서 달서구 주민들이 실망스러운 반응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 조민웅 기자

비·조정석, 난데없는 불륜설에 “허위사실…법적대응할 것”

한류스타 비와 배우 조정석이 여성 골프선수와 난데없는 불륜설이 유포된데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비의 소속사 레인컴퍼니는 6일 공식 SNS를 통해 “당사는 루머와 지라시(정보)를 인지하고 있었으나 대응할 가치조차 없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기에 어떤 입

장 표명도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하지만 어제오늘 루머가 빠르게 퍼져나가 아티스트(비)는 물론 그 가족(김태희)에 대한 인신공격과 비난이 무분별하게 이뤄

져 더는 묵과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위가 파악되지 않은 내용

을 사실인 것처럼 올리거나 악성 게시글

을 작성하는 행위에 대해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불법정보 유통금지 위반 등으로 선처 없이 법적 절차로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레인컴퍼니는 또한 “대중에게 노출된 연예인이기에 앞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 예의, 인권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정석의 소속사 잼엔터테인먼트 역시 공식 SNS를 통해 “배우 조정석이 골프 선수와 친분 이상의 관계가 있다는 허위 사실이 각종 커뮤니티와 SNS 등에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다”며 “이는 모두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정석은 그 어떠한 여성 골프 선수와도 개인적 친분뿐만 아니라 일면식도 없다”며 “명예를 훼손하는 악의적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한애민 기자

박수홍 친형 61억원 횡령 혐의 구속기소

박씨 개인계좌서 29억원 무단인출

방송인 박수홍(52)씨의 친형 부부가 박씨 연예활동과 관련한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은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박씨의 형 진홍 씨를 구속기소, 형수 이모 씨는 불구속기소했다.

진홍 씨는 2011~2021년 연예기획사를 차리고 박씨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박씨 개인자금 등 모

두 61억7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진홍 씨는 인건비 하위 계상으로 회삿돈 19억원을 횡령했으며, 11억7천만원을 빼돌려 건물을 매입하는 데 썼다. 신용카드 결제 등 방식으로 회사자금 1억8천만원을 유용했다.

그는 또 박씨 개인계좌에서 29억원을 무단으로 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 아버지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박씨의 개인자금을 관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진홍 씨가 동생 돈을 관리하면서 29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판단했다.

박씨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부친이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을 적용해 아들 진홍 씨의 처벌을 막으려 한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형법은 4촌 이내 인척 및 배우자 간에 일어난 절도·사기 등 재산범죄는 형을 면제한다고 규정했다. 아버지가



방송인 박수홍

박씨 개인자금을 횡령한 경우 친족상도례 조항에 따라 아무도 처벌받지 않게 된다.

아버지는 박씨가 형을 고소한 이후 박씨를 협박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에는 검찰 대질조사를 앞두고 박씨를 폭행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진홍 씨 구속 이후 40억원대 횡령액을 추가로 밝히고 이씨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생명보험 관련 의혹은 범죄로 성립하기 어렵다고 봤다.

계약자와 수익자·납부자 모두 박씨로 되어있어 진홍 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동생에게 보험 가입을 강권했다거나 보험금을 챙기려 했다고 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진홍 씨 부부가 소유한 시가 100억원 상당의 건물과 관련해서도 매입 과정에서 회삿돈 11억7천만원을 쓴 점 이외에 다른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 정영택 기자

검찰연합일보

www.unionilbo.com

회장·발행인 송원기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여의도동) 국회본관 175

편집인 이수진 대표전화 1533-1545

인쇄인 한현숙 E-mail mbc0300@gmail.com

청소년보호책임자 신선 등록번호 서울, 아53015 서울, 가50142

구독광고문의: 1533-1545 /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봇데가 응원합니다

상큼함 MAX
칼로리 X
TAMS ZERO

롯데칠성음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롯데가 응원합니다

Every Step for GREEN.



플라스틱 자원선순환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프로젝트 루프

이곳에
세상에
이롭게

롯데케미칼

롯데알미늄

● ● ■ 롯데화학 가족은 사람과 자연이 조화로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